

오늘의 나를 만든 어제의 숨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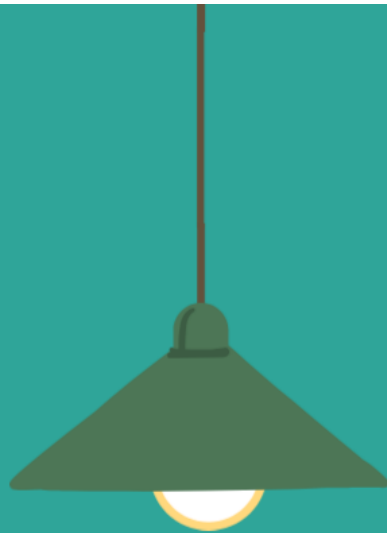
김조세린 지음



오늘의 나를 만든 어제의 숨결

김조세린 지음





김조세린

읽기, 걷기, 듣기, 그리기, 먹기, 멍 때리기를 좋아하며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간다. 책 읽기는 습관처럼 삶을 채워주고, 걷기는 은퇴 후에도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습관이다. 대중교통에서는 일부러 2~3정거장 먼저 내려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듣기와 그리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멍 때리기는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는 여유의 시간이다.

#읽기 #걷기 #듣기 #그리기 #먹기 #멍 #때리기



김조세린 <평화>

평화

소란하지 않은 기쁨, 그 조용한 무늬 속에서 나는 숨 쉬고 있다.

읽는다. 걷는다. 듣는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을 바라본다. 책은 습관처럼 곁에 있다. 눈을 뜨자마자 펼치고, 잠들기 직전까지 읽는다. 단어들이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는다. 어둠처럼, 빛처럼. 걷는 일은 오래된 약속 같다.

계절이 바뀌는 길을 따라, 몇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다. 발밑에서 낙엽이 구르고, 바람이 옷깃을 건드린다. 그리는 손끝엔 말하지 못한 것들이 남는다.

먹는 순간엔 아무 말도 필요 없다. 모든 감각이 잠시 그곳에 머문다.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것들이 있다. 사람의 목소리, 음악, 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눈을 감고 멍하니 앉아 있다. 생각이 사라지는 그 틈에, 이상하게도 새로운 생각이 고요히 스며든다. 이 모든 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이 된다..



김조세린 <사랑>

사랑

두 마리의 돌고래가 마주 선다. 한쪽은 바다의 깊고 고요한 푸른빛을 지니고, 다른 한쪽은 따스한 생명의 기운을 담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다. 서로 다른 빛깔이 눈을 맞추는 순간, 그 사이로 작은 무지갯빛 하트들이 피어오른다.

나는 이 장면 속에서 사랑의 얼굴을 본다. 사랑은 인간만의 감정이 아니다. 햇빛을 따라 몸을 뻗는 풀잎에도, 서로를 감싸 안는 동물의 시선에도,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게 건네는 작은 마음에도 고요히 깃들어 있다. 사랑이 있기에 생명은 태어나고, 지구는 여전히 숨 쉬며, 세상은 이어져 간다.

오래전 셰익스피어가 고민하고 갈망했던 사랑도 결국 이와 다르지 않았으리라. 세기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모든 존재를 이어주고, 서로를 비추며, 삶을 지탱하는 가장 순수한 힘으로 남아 있다. 돌고래의 눈빛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서로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넨다. 그렇게 사랑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살아 있게 한다.

나의 빛났던 순간

나에게 ‘빛났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떠올리면, 사실 뚜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은 많지 않다. 특별한 무대 위에 섰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박수를 크게 받았던 순간도 아니다. 하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으며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온 시간들이 곧 나의 빛이었음을 깨닫는다.

나는 늘 한 가지 원칙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다.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좋을 때는 작은 성취감과 만족이 나를 빛나게 했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부족함을 발견하면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했다.

돌이켜보면 빛나는 순간이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 속에 있었다. 작은 선택에도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자세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 꾸준함이 가장 빛나는 가치였다. 따라서 나의 빛났던 순간은 어느 한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에게 성실했던 시간들이 모여, 나를 지금의 나로 존재하게 하는 찬란한 빛이 되었다고 믿는다.

앞으로 기대하는 내 모습

젊음의 언저리에서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다. 피어오르는 열정은 매일 나를 부추겼고, 세상의 불합리와 맞서 싸우는 것이 곧 나의 역할이라 여겼다. 손에 잡히는 일마다 온 힘을 다했고, 크고 작은 이상과 꿈을 향해 달려갔다. 그때의 나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의지가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열정은 나에게서 조금씩 멀어져갔다.

부딪히고 상처받은 시간들, 바라는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모든 노력들이 정말 의미 있었나’ 하는 회의가 찾아왔다. 크게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 나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서게 됐다. 끝까지 악착같이 부딪혀 목표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순리에 몸을 맡기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며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다. 생각을 바꿨다기보다, 살아가는 방식에 작은 균형을 넣기로 마음먹었다. 열정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해 온화한 태도가 들어섰고, 때로는 흐름을 따르는 것이 더 큰 지혜임을 배웠다. 순리에 따른다는 말이 결코 포기나 체념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나만의 페이스를 지키고,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며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가 숨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어떤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려는 마음은 여전하다. 다만 이제는 그 용기가 무턱대고 돌진하는 용기가

아니라,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고 필요한 때에 힘을 모으는 용기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지금처럼,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변함없이 나의 방식으로 맞설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작은 의식이 되었다. 언젠가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될 날이 오면, 나는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싶다. ‘내게 주어진 삶을 나대로,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크고 화려한 업적이나 남들이 인정하는 눈부신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성실히 선택하고 책임진 흔적들이 모여 하나의 온전한 삶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서는 무엇보다 귀한 완성이다.

돌이켜보면 젊음의 뜨거움과 중년의 차분함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였다.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는 불꽃을 지폈던 내가, 이제는 그 불꽃을 내면의 온기로 바꿔 소중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나를 지키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한다. 결국 삶이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들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야말로 진정한 빛이 아닐까. 나는 오늘도 그렇게, 나다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차례

평화

사랑

나의 빛났던 순간

앞으로 기대하는 내 모습